



회적 공헌(CSR)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강남구의 발전은 병원과 같은 우수한 기관,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병원이 동참해 주신다면, 이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병원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차례의 실무 협의 끝에 파격적인 조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모범 및 유공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종합건강검진 비용 최대 30%를 할인해 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제휴 할인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확실한 예우를 갖추겠다는 양 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제2막: 의료 인프라, 납세자 혜택이 되다

2025년 4월 23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의미 있는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강남구와 관내 주요 의료기관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산의료재단 광동병원이 함께하는 ‘모범·유공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조상현 광동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남구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성실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지역 사회 공헌(CSR)을